



DCU K-MOOC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

DCU K-MOOC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



DCU-Center for Teaching & Learning

경북 경산시 하양읍 하양로 13-13 본관(A1) 306호
TEL. (053) 850-3373
<http://ctl.cu.ac.kr>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학습지원팀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학습지원팀

DCU K-MOOC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



DCU K-MOOC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



DCU K-MOOC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

05 | 대상 박천복

학습에 대한 열정은 교내를 넘어 교외로 갈 수 있어야 한다.

09 | 최우수상 원혜인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가 내게 알려준 준 시간

15 | 우수상 손지우

K-MOOC를 듣고 나의 지식세계 넓어졌다.

19 | 우수상 양형주

우리 인생의 의미는 삶의 목표를 설정하는데서 시작된다.

23 | 우수상 전예진

나에게 다가온 큰 도움

27 | 우수상 임상혁

비전공자라고? K-MOOC만 믿고 따라와!

31 | 우수상 윤도영

흥미로 심어 기른 좋은 결과

35 | 우수상 김아현

강의로 인한 나의 계획

39 | 우수상 송혜진

인간과 삶을 통한 나 돌아보기

타기관 K-MOOC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

43 | 대상 임예은

K-MOOC로 심리학 배워서 두 마리 토끼 잡기(자격증과 내면 이해)

47 | 최우수상 전혁진

든든한 버팀목, K-MOOC강좌

51 | 우수상 윤도영

좁은 사고를 넘어 넓은 세상으로

55 | 우수상 양형주

K-MOOC 강좌로 꿈에 한걸음 더 다가가기

59 | 우수상 권혁재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63 | 우수상 송혜진

‘반려견 기본예절 훈련’을 듣고

67 | 우수상 김주라

k-MOOC가 교육의 벽이 허물다

71 | 우수상 임상혁

화학에 관련된 학생에게 필요한 입문서

75 | 우수상 이현주

타학교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무료강의가 있다?



대상 박천복

학습에 대한 열정은
교내를 넘어 교외로 갈 수 있어야 한다.



학습에 대한 열정은 교내를 넘어 교외로 갈 수 있어야 한다.

참여강좌 파이썬 기반 빅데이터 처리 및 분석 기술

본인의 미래를 위한 목표를 이루는 과정은 어떠한가요? 각자가 자기만의 방식으로 삶을 설계하고 실현하면서 나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IT 기업의 취업을 목표로 대학을 다니고 있으며 강의를 포함한 비교과 활동을 통해 본인의 내재적 자산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으로 본인의 미래를 명확히 설계할 수 있을까요?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지식을 교수님들이 강의하시는 것에는 부담이 매우 큼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교육과정이 학교 내에 없거나 관련 없는 전공과목이 존재할 수 있으며, 주제가 일치한다고 해도 세부적인 내용에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결국, 대학교 과정만으로는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는 한계가 발생합니다.

저는 IoT(사물인터넷)와 관련된 분야에 관심이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으로 아두이노와 라즈베리파이, 센서, 머신러닝, 네트워크, 보안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분야가 전공별로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에 한 전공에서 모두 이수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수 전공으로 교육과정을 통합하여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학교 과정으로 지식을 충분히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학기마다 강의 시간은 고정적이기 때문에 내용이 많은 분야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중간까지만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강의에 문제를 줄 수 있는 잠재적 변수(공휴일, 행사, 개인 사정 등)들이 많아서 수강계획서에 적힌 교육과정을 정확히 다루지 못하거나 바뀌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원하는 내용을 다루고 자유롭게 학습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

방법의 하나로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K-MOOC에 대한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이전부터 서비스되었던 온라인 강의들은 현재 온라인 교육 방법이 필수로 요구되면서 수익을 높이기 위해 더욱 다양하고 효율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강의를 적극적으로 듣기 시작한 소비자 중 한 명입니다. 현재 온라인으로 학교 교육과정에 없거나 현재 들을 수 없는 내용을 다루는 주제의 강의를 우선으로 듣고 있습니다. 학교 강의를 듣고 있지만 다른 교수님이나 강사님들을 통해서도 들어보고 싶어서 수강 중인 강의도 있습니다. 최종 방향은 개발자이기 때문에 교육 과정 중에서도 실습이 많이 포함된 과목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원하는 강의를 하나하나 찾다 보니 3곳에서 온라인 강의를 듣는 중이며 그중 하나가 K-MOOC입니다. K-MOOC의 온라인 강의 서비스는 학교 교육과정과 유사하게 한 학기의 정규 기간 학습할 수 있으며 기간이 종료된 강의는 '청강' 서비스를 통해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수강 중인 강의는 '파이썬 기반 빅데이터 처리 및 분석 기술'입니다. 머신러닝 분야가 제가 소속된 학과에는 교육과정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 강의를 통해 스스로 공부하고자 선택하였습니다. 제목에서 파이썬을 기반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배경지식으로 파이썬을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언어를 강의를 듣기 전에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서 보거나 온라인 검색하여 미리 관련 내용을 학습하였습니다. 강의에서 제공하는 ppt 자료를 모두 다운로드받아서 폴더로 관리하였으며 실습이 많이 요구되는 강의였기 때문에 노트북과 모니터 1개로 2개의 화면을 준비하여 왼쪽을 강의 영상, 오른쪽을 소스 코드 작성 화면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강의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온라인 검색을 통해서 알아보고, 노트를 준비하여 강의 영상 내용과 검색 내용을 포함한 자세한 정보를 기록하였습니다.

온라인 강의의 장점으로는 학습하다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영상을 멈추고 검색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공부해보다가 다시 진행할 수 있다는 것과 다시 듣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반복 재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학교 강의의 경우에는 한 학기 과정의 강의 자료를 한 번에 게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강의의 경우에는 해당 강의에 대한 모든 강의 자료를 수강 신청을 하면 모두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원하는 정도까지 공부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공부를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K-MOOC 온라인 강의의 강력한 장점은 같은 주제의 온라인 강의를 다양한 대학에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기호에 맞는 강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수강할 의사만 있다면 얼마든지 참여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본교에서 제공하는 K-MOOC 강의는 본교 소속 교수님들이 교내 교육과정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직접 제작하여 제공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교내 교육과정과 적절히 배합하여 학습한다면 더욱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타 전공과 관련된 내용이라도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내용이 구성되어 있으며 강의 내에 자막이 제공되어서 내용을 읽어보면서 따라갈 수 있습니다. 결론으로, 온라인 강의로 확실한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강의를 꾸준히 챙겨서 들을 수 있는 열정과 끈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본교 ‘파이썬 기반 빅데이터 처리 및 분석 기술’ 강의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다양한 분석 방법을 학습하고, 분석한 결과를 시각화로 표현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현재 세상에서 끊임없이 생산되는 데이터들을 특정 목적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정보로 활용할 수 있는 기본 지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K-MOOC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머신러닝 분야의 가장 기본이지만 중요한 데이터 분석의 기초를 배웠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식을 응용하여 실제 개발이나 서비스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같은 주제를 응용한 내용이 담겨있는 교육과정의 강의를 수강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관련 참고자료나 서적을 검색하고 준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합니다. 공공데이터포털 등의 서비스로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각종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 주제를 정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서비스를 구현해볼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기회는 있을 때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기회가 있다고 무조건 잡아도 대부분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목표를 분명히 잡은 다음 그에 부합하는 과정들을 설계하고, 필요한 것들을 학습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기회를 잡고 진행하게 되었을 때 새로운 문제들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며 해결하면서 얻는 경험과 결과들은 다른 누구보다 뛰어날 것입니다. K-MOOC 강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작이자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의 끈기 있는 도전과 열정에 응원을 보냅니다.



최우수상 원혜인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가
내게 알려준 준 시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K-MOOC)가 내게 알려준 준 시간



참여강좌 파이썬 기반 빅데이터 처리 및 분석 기술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에 본교 강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경로는 학과 친구를 통해서였다. 시간표가 수업과 근로로 꽉 차있는 탓에 다른 비교과 프로그램을 들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그때 친구가 가르쳐 준 것이 K-MOOC 이었다. 원격 수업방식으로 실시간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사이트라며, 일과시간 이후에 혼자 수업을 듣고 과제 제출과 시험을 치르고 나면 Stella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장학금을 받고 싶지만 3점 이상의 Stella 점수를 채울만한 마땅한 특강을 들을 수 없었던 내게는 반가운 소식이었다. 그렇게 처음에는 K-MOOC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불순한 의도만을 가지고 접근했었다.

K-MOOC을 처음 알려준 친구에게 들어 본교 강의 외에도 다른 강의도 많다는 것을 듣기는 했었다. 그러나 막상 K-MOOC 사이트에 들어가자 내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강의들이 많이 있었다. 본교 교수님들의 강의뿐만 아니라 타 학교 교수님의 강의들도 개설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나의 주전공에 대한 여러 교수님들의 기초이론 수업을 통해 타 학교 교수님께서 다른 책 내용을 위주로 하는 수업을 통해 내가 배운 것과는 다른 시각의 해석을 들을 수도 있었다. 또한 평소 궁금했던 다른 전공의 개론에 대한 강의도 개설이 되어 있었기에 성적이나 과제물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흥미만으로 수업을 듣는 것도 가능했다. 그렇기에 흥미는 있었지만 우리 학교에서는 개설되지 않았던 강의나 개설이 되었어도 수강신청을 미처 하지 못해 들을 수 없었던 강의를 성적이나 시간에 묶

이지 않고 들을 수 있도록 K-MOOC에서 길을 열어주고 있었다.

또한 나는 2019년도 겨울학기 때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멘토링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아동센터는 일주일에 한 번 외부강사를 초청해 코딩 교육을 하는 시간이 있었다. 나보다 10살 정도 어린 초등학교 친구들이 코딩을 하는 모습을 보며 그저 신기하다고만 느꼈는데,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배운다며 척척해내는 모습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요즘 초등학교들은 기본 교육으로 코딩을 한다는 소리를 들긴 했지만 주변에 초등학교가 없기에 크게 체감하진 못했다. 그러나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을 하며 실제로 초등학교 친구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스스로 코딩하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했다. 그만큼 현대에서 코딩은 기본 교양이 된 것이다.

작년부터 우리 학교가 SW 중점학교로 선정이 되면서 신입생들은 SW 계열의 필수 교양을 6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작년에 눈으로 본 것과 같이 초등학교들도 하는 내용이었지만, 억지로 해야 한다는 인식 때문에 코딩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다. 그렇기에 학과 상관없이 들어야 하는 소프트웨어와 코딩 수업의 과목을 이해하고 수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본교 K-MOOC 강좌 중에는 SW 계열의 강좌도 다양하게 개설이 되어 있었다. 이러한 강좌를 듣는다면 SW 계열의 교양에 대한 이해도를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단과대 계열 필수 소프트웨어 교양으로 파이썬을 들으려고 했지만 수강신청을 하지 못했고, 현재는 학과 계열 필수 소프트웨어 교양으로 ‘기초 빅데이터 분석’을 수강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K-MOOC을 통해 ‘파이썬 기반 빅데이터 처리 및 분석 기술’ 강의를 수강한다면, 현재 수강 중인 빅데이터 관련 강의와 앞으로 수강할 파이썬 관련 강의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Stella 점수까지 받을 수 있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예상외로 훨씬 더 유익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먼저 현재 수강 중인 ‘기초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기초를 더 탄탄히 다질 수 있었다. 물론 현재 수강 중에 있는 빅데이터 과목은 R studio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K-MOOC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다. 그러나 빅데이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기초 빅데이터 분석’ 강의 중 묻지 못했던 내용을 이 강의를 수강함으로써 들을 수 있었고 빅데이터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 덕분에 실습이 아닌 이론 위주의 중간고사 시험에서 공부를 수월하게 할 수 있었고, 중간고사에서 만족할만한 점수를 받았다.

또한 앞으로 쓸 파이썬에 대해 알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 K-MOOC 수강 이전에는 그

저 초심자가 하기 가장 쉽다고 들어서 파이썬을 선택해 수강할 생각만 있었지 파이썬이 무엇이고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K-MOOC 수강 이전에는 프로그램마다 쓰는 용어나 방식이 다르다고는 들었어도 그래봤자 같은 언어라고 생각하며 그러려니 하고 넘겼었다.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해 파이썬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과 파이썬에서 쓰는 용어를 알 수 있었고, 활용 방법을 배우게 됨으로써 앞으로 수강할 강의에 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처음 K-MOOC 사이트에 들어갔을 때는 Stella 점수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다른 강의를 자세히 보지 않았다. 본교 강의를 위주로 신청을 했고 그 외에는 내가 관심 있던 분야에 대한 강의가 있나 싶어 조금 더 찾아 본 것이 전부였다. K-MOOC 수강 기간이 끝난 뒤로는 중간고사 기간이라 여유가 없다는 핑계로 다시 사이트에 방문해서 자세히 보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리고 이번 공모전에 낼 수기를 쓰면서 다시 한번 K-MOOC 사이트에 들어갔다. 800여 개가 넘는 강의의 카테고리를 분야 별로 대분류와 중분류로 자세히 나누어 두었고, 현재 진행 중인 강의와 종료되었지만 청강 가능한 강의로 자세히 분류해 두었다. 그래서 어떤 강의가 있고 종료되었지만 청강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한 번에 모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마 학교에서 K-MOOC 강의를 개설하지 않았거나, 공모전을 참가하지 않아서 그대로 사이트에 재방문 하지 않았다면 계속 몰랐을지도 모른다.

이 시간을 통해 다양한 강의를 둘러보며 내가 주전공 외에도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었는지, 어느 학과에서 어떤 과목이 개설되는지를 알 수 있었다. K-MOOC은 여러 사유로 학점 은행제나 학점 인정, 비교과 점수 인정 등이 필요한 대학생들이 대부분 이용한다고 들었다. 그러나 나는 강의를 둘러보며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친동생이 떠올랐다. 동생은 대학교 진학을 위해 학교들을 찾아볼수록 학과가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많고, 이름도 다양해 어떤 학과가 무슨 공부를 하는 곳인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K-MOOC에는 다양한 학과의 기초 전공들이 개설되어 있다. 그렇기에 앞으로 갈 학과와 진로를 지정하고 싶은 고등학생들이 사이트를 둘러보고 기초 전공을 들으며 그 과목이 어떤 내용인지 알게 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독학이 힘들거나 하는 방법을 몰라 막막해 하는 일반인들에게도 그러한 이유로 K-MOOC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코딩이 필수 과목으로 자리 잡으며 코딩 능력을 요구하는 회사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알고 있다. 그래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코딩 학원을 다니기도 한다고 들었다. 그러나 K-MOOC에서는 4차 산

업혁명과 AI 인공지능에 대한 카테고리도 따로 분류해 놓았다.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K-MOOC을 이용한다면 무료로 코딩에 대해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령별 강좌와 직업교육 카테고리도 있는 만큼 K-MOOC은 교육 방향을 학생으로 한정짓지 않고 넓게 바라보고 있다. 그렇기에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의 홍보가 더욱 잘 되어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이 원했던 공부와 자기개발을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란다.





우수상 손지우

K-MOOC를 듣고
나의 지식세계 넓어졌다.

K-MOOC를 듣고 나의 지식세계 넓어졌다.

참여강좌 인간과 삶



나는 지난 학기에 수강신청에서 ‘인간과 삶’이라는 과목을 발견하게 되었고 강의 계획서를 차근차근 살펴보니 한눈에 반하게 되었다. 그래서 수강꾸러미에 넣어두었지만 인원이 초과되어 수강꾸러미를 실패하였다. 하지만 수강신청 당일에 성공하여 꼭 듣고 싶다고 결심하게 됐지만 인터넷 강의여서 그런지 일반 강의보다 인원이 많은 300명의 인원이 신청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유혜숙 교수님의 강의는 인기가 많아 수강신청에 실패하여 좌절하고 말았다. 그러던 중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인 K-MOOC에서 ‘대구가톨릭대학교’를 검색해보니 이 중에서 인간과 삶을 발견하게 되었고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수강신청 버튼을 눌러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이 강의는 유혜숙 교수님, 박용욱 신부님, 임재우 신부님. 이렇게 3분이서 가르치는 강의였다. 강의에 대한 소개를 살펴보니 이수율이 60%이상 넘어야지 이수증을 받을 수 있었고 내가 듣고 싶었던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해준 K-MOOC에 감사했다.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나는 강의를 듣기 시작했다.

이 강의에서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중요한 삶의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성찰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인간이 올바른 인생의 길을 찾아보고 내가 살고 있는 삶에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탐구하여보는 과목이었다. 나는 이 강의를 듣기 전까지는 삶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살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 과목이 어떤 내용인지를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게 되었다. ‘나

도 이 강의가 종료되는 날에는 삶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까지는 강물처럼 흘러가는대로 흐름에 맡기는 인생이었다면 이 강의를 통해서는 강물이 아닌 테트리스처럼 계획에 맞춰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하는 좋은 성찰 시간이 되리라 생각했다.

그리고 소비주의와 물질주의, 경쟁과 일등주의에 집중된 젊은 사람들에게서 자아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로 인해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준다면 삶의 목적과 의미가 뚜렷해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앞으로 살아가는데 행복한 삶을 살게 해준다고 하였다. 서서히 자아를 완성시켜가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전보다는 나은 삶의 통로를 모색할 수 있는 사람이 들으면 좋다고 하였다.

먼저 1주차에서는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였고 오늘날의 사회와 인간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2주차에서 탄생을 주제로 한 생명의 탄생, 3주차에서는 인간이 어떻게 성장하고 발달되었으며, 어떠한 인간으로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해 강의를 시청할 수 있었습니다. 4주차에서는 사회에 대해 공부하며 도덕적 인간, 비도덕적인 사회, 개인과 사회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고, 5주차에서는 경제를 공부하며 세계 경제에 대한 역사와 올바른 세계 경제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되었다. 그리고 6주차에서는 노동의 의미가 무엇이며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됨에 따라 노동이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고 7주차에서는 성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인간에게 빠질 수 없는 사항이 성이라고 생각했던지라 이 부분은 연인 사이에서 꼭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제 8주차에 중간고사를 치르게 되었다.

9주차, 10주차에서는 가정에 대한 내용을 배우게 되었는데 혼인, 다양한 가족의 모습, 화목한 가정 등에 대해 배워볼 수 있었는데 가정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고 있는 모습들이라고 생각하여 머리에 많이 남는 주제였다. 그리고 11주차에서는 생태계의 위기와 위기에 대한 각성에 대한 내용을 배웠고, 12주차, 13주차에서는 죽음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배운 내용에는 죽음의 유혹, 자살, 안락사,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단계와 자살이 그 관련 내용이었다. 마지막으로 14주차에서는 인간과 삶의 목적과 웰빙 웰다잉에 대해 배우면서 준비했던 주제들을 마무리 지었고 15주차에는 기말고사를 치르게 되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 관련된 내용들을 배워볼 수 있었다.

이 과목을 통하여 인간에게 있어 주요한 삶의 내용들을 들어보고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지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처음에는 ‘인간? 내가 지금 인간이라는 존재로 살면서 지나가는 시간들이 다 삶일텐데, 이 과목에서는 인간과 삶이 어떤 연관이

있는걸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인간과 삶’이라는 강의를 통하여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 다양한 부분들을 배우며 지식의 범위를 늘릴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나는 생각했다. 그리고 강의 주차가 지나갈수록 강의의 주제가 서로서로 연결된 큰 연결고리라는 느낌이 들었고 나중에 종료되고 보니 이것이 하나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강의의 내용들이 중간에 뚝뚝 끊어지는 것이 아닌 다음 주차 수업을 들을 때도 하나로 이어져 어색한 부분 없이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학습 성과를 주었다고 생각했다. 보통 일반 강의들은 주차마다 새로운 내용을 배워 연결된다는 느낌이 많이 없었는데 이 강의는 일반 강의들과는 달리 주제들이 하나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무언의 연결고리로 이어져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삶의 계획을 세우면서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살아갈지 생각해 볼 수 있어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향후계획은 유혜숙 교수님의 다른 강의인 ‘생명윤리’라는 과목을 신청하여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인간과 삶’이라는 강의를 통해 삶에 대한 관심도가 커졌기 때문에 ‘생명윤리’ 강의를 수강하게 된다면 인간에 대해서 더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K-MOOC에 대구가톨릭대학교에 속해 있는 다른 강의들도 들어보면서 지식세계를 차근차근 넓혀가고 싶다고 생각했다. 지금은 강의를 수강하는 기간이 지났지만, 종료 후에도 다른 강의를 듣고 싶다면 청강이 가능하여 이 부분에 있어 내가 다른 강의를 공부하기에도 안성맞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기말고사를 치르고나면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를 찾아서 청강이나 수강 신청하여 열심히 들어볼 계획을 세우고 있다.

나는 보통 공부를 할 때 수업시간에 집중하여 들으면서 필기를 하고 나중에 시험기간이 다가오면 수업 자료를 다시 뽑아서 수업 내용을 필기한다. 그렇게 필기를 마친 뒤에는 노트에 수업 자료들을 간략히 요약하여 적기도하고 에이포용지에 수업 자료 한 페이지를 외우고 그대로 옮겨 쓰고 나중에 자료를 확인하면서 내가 부족했던 부분이 어디인지를 파악하며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기도 하였다. 그렇게 공부하니 확실히 내용이 눈에 잘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고 이전에는 외우는 것에 자신이 많이 없었다. 하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헤쳐 나가며 서서히 극복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지금도 한꺼번에 많이 하려고하면 잘 안되지만 조금씩 해나간다면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면 잘 극복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DCU K - MOOC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



우수상 양형주

우리 인생의 의미는 삶의 목표를
설정하는데서 시작된다.

우리 인생의 의미는 삶의 목표를 설정하는데서 시작된다.

참여강좌 인간과 삶



대학에서 인문학을 배워보고 싶었던 나는 2학기가 시작되며 관련된 교양 과목을 신청하고 싶었다. 하지만 많은 본교 학생들의 관심으로 수강신청에 실패하게 되었으며, 인문학을 공부하며 교양 지식을 쌓고 싶었던 내게는 아쉬운 일이었다.

그러나 본교 K-MOOC강좌 ‘인간과 삶’의 개설은 인문학을 공부하고 싶던 나에겐 새로운 기회였으며, K-MOOC강좌는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이미 많은 과목을 수강하던 내겐 더없이 유용한 강좌였다.

때문에 나는 이 강좌를 통해 교양지식의 함양과 전공과목으로 지친 내가 리프레시의 시간이 되길 바라며 수강하게 되었다. 중간고사가 끝난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강좌를 수강할 수 있었으며, 여유 시간이 생길 때 교양지식을 쌓는다는 생각으로 강좌를 보고 공부하였다.

강좌를 수강하면서 느낀 점은 이 강좌는 단순히 인간의 삶을 다루기만 한 것이 아니라 는 점이였다. 강좌를 통해 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겪는 삶과 죽음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사회, 살아가면서 겪어야 하는 경제적인 것들, 노동, 가정과 같이 살아가면서 겪는 사회적인 요소들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다.

특히나 강좌의 내용 중 마음에 들었던 것은 5주차 강의 ‘인간과 경제’부분에서 배우게 된 세계 경제 역사와 올바른 경제 성장이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와 세계경제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그것을 이용해 왔지만 정작

경제와 관련된 지식을 배울 기회는 거의 없었다.

그러던 중에 배우게 된 ‘세계 경제의 역사’는 역사를 좋아하는 내게 매우 흥미로운 내용이었고, 이어진 올바른 경제 성장을 배우며 앞으로의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되어갈지, 또한 세계 경제가 우리나라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런 경제 상황 속에서 20대의 나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듯 신문이나 뉴스 등 매체를 통해 뭔가를 보고서 느끼는 것이 많아졌다면, 그만큼 아는 것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이 강좌를 수강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경제, 노동,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해 알아가게 되며 나는 과연 내가 안정적으로 2020년대에서 살아갈 수 있을지, 또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잘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과 고민을 갖게 되었다.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불황을 겪고,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과 이슈가 생겨나는 요즘은 더 더욱 살기 어려운 시기가 되면서 고민거리는 더욱 늘어만 갔다.

하지만 덕분에 앞으로의 내 미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었다. 나의 미래를 계획하고, 내가 이런 경제와 사회 흐름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생각하게 된 것이다. 더불어 이런 사회적 환경 속에서 내 삶은 어떻게 꾸려 갈 것인지 구상할 수 있었다.

결국 나 역시도 사회인의 일원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이고, 장차 교사를 꿈꾸는 교육학도이다. 때문에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하게 이뤄지고 있는 현재와 미래사회에서 나는 무슨 교육을 펼쳐야 할지 생각하게 되었다. 사회적 혼란을 감소시키고, 윤택한 삶과 사회, 경제를 위해서라면 지금보다 좀 더 지혜롭고 미래지향적인 교육이 펼쳐져야 할 것이다. 강좌 수강한 후 그런 교육이 무엇일지 생각해보고, 앞으로 교육학을 배울 때 인간과 삶의 내용을 참고하여 내가 펼쳐갈 교육에 대한 계획을 세우자는 생각을 할 수 있었다.

강좌의 마지막 내용인 웰빙과 웰 다잉도 매우 흥미로운 내용이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추구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다 죽는 것이다. 해당 내용을 수강하면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나의 노후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었다. 20대의 내가 늙어갈 때면 지금보다 더 빨리 많은 것이 변하고, 사회적으로도 많은 환경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지금이야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의 사회에서 적응하여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의 미래에서도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점에서 강좌의 내용은 우리가 잘 살아가고, 현명하게 살아가고, 잘 죽는 것도 우리에게겐 목적이자 필요한 것이라는 점을 알려주었다.

모든 강의를 수강한 후, 나는 앞으로의 인생에서 현명하게 살아가기 위

해서는 미래계획을 확실하게 차근차근 쌓아가겠다는 목표가 생겼다. 그리고 나의 꿈을 이뤄 이러한 것들을 실현시켜야겠다는 목적의식도 가지게 되었다.

요즘의 청년들은 ‘소확행’, 즉 작은 것들로부터 소소한 행복을 취하는 것이 유행이 되고, 소확행의 성취가 목표가 되었다. 하지만 이 강좌를 들은 나는 그저 돈을 벌고 아껴서 소소한 행복을 누리고, 작은 즐거움에서 만족하는 것만이 아니라, 더 큰 목표와 자신의 꿈과 진로를 이루겠다는 마음가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살고, 사회에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웰빙과 웰 다잉을 실천하고 싶다면 꿈을 이루고 더 큰 행복을 누릴 필요가 있다. 강좌가 소개한 것처럼 결국 노동의 중요성도 내가 하고 싶고 목표가 있는 노동을 해야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꿈을 이뤄야 하며, 자신의 진로계획을 성립하고 이뤄야 한다. 때문에 이 강좌를 수강하고 난 후, 나는 우리 대학생들도 ‘대확행’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인간과 삶’의 강좌를 수강하는 시간은 내게 매우 소중한 시간이었다. 강좌를 통해 나는 우리의 존재 의의와 삶의 의미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으며, 앞으로의 삶을 고민하고 계획하는 존재로 거듭났다. 지금까지는 한주간 살아갈 자신, 한달간 살아갈 자신을 계획하는데 그쳤다면, 강좌를 수강한 후의 나는 앞으로의 나, 꿈을 이룬 나, 내가 살아갈 사회에서 성공하고 살아남은 나를 생각하며 꿈을 이루기 위한 계획,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는 계획을 구상하고 그것에 필요한 지식이 무엇인지 탐구하는 존재가 된 것이다.

수강을 마친 나는 성적에 대한 압박과 삶에 대한 무기력함에서 벗어나고, 자율적이며 계획적인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었으며 삶에 의미를 알고 살아가는 인간이 되었다. 강좌 덕분에 앞으로의 미래에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과연 10년뒤의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게 될지 희망과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다. 부디 이 강좌에서 배우고 되새긴 마음가짐이 변하지 않길 바라며, 나는 아직 강좌를 수강하지 못한 이들에게 이 강좌를 적극 추천한다.

DCU K - MOOC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



우수상 전예진

나에게 다가온 큰 도움

우수상 전예진



나에게 다가온 큰 도움

참여강좌 음악과 미술 사이, 인간과 삶, 제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의 이해, IoT 응용 프로그래밍, 파이썬 기반 빅데이터 처리 및 분석 기술

우선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을 접하게 된 것은 친구의 추천이었다. 처음에는 나의 전공분야도 아닌 강좌를 들으려니 거부감이 들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과 연관되어 있는 강좌도 있었고 변화하는 지금 시대에 들어두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은 강의들도 있었기에 들어보게 되었다.

처음에는 내 전공분야가 아니거나 평소에 쉽게 접해보지 못했던 강의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학습을 하는 것에 있어서 쉽지는 않았다. 특히 기술 분야나 빅 데이터 분야 같은 경우는 생활 속에서 접해볼 기회도 흔치 않았고 기술과 관련된 내용을 배우거나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더욱 어렵게 다가왔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해내고 싶었던 것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추천해준 친구의 도움을 조금 받았던 것도 사실이다. 친구와 함께 할 때는 먼저 혼자 강의를 듣고 모르는 부분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생기면 친구에게 물어보고 함께 토론을 해보기도 했다.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는 친구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부분이 다르기도 했다. 그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결론도 도출해 보았고, 알지 못한 새로운 내용을 발견하기도 하였다. 물론 그 친구는 전공으로 접하고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나 보다 고차원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학습하는데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것 같다. 강의를 듣는 것까진 무리가 없었지만 이수를 위해서는 퀴즈나 중간, 기말이라는 시험을 쳐야했었는데,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나는 처음에는 틀리는 것도 많았다. 그렇지만 열심히 강의를 들으면 모두 쉽게 풀 수 있

는 문제들이었고, 그 후 강의를 열심히 듣기 시작했다. 강의를 듣기 시작하니 처음에 전공과 관련되지도 않은 내용인데 들을 필요가 뭐 있겠나 하는 생각이 사라지게 되었다. 전공이 인문계열 인데다, 교육계열이다 보니 내가 가르치고자 하는 분야만 알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강의를 듣고 나니 그 생각이 많이 사라지게 되었다. 실제로 4차 산업과 관련된 영상에서는 기술과 변화하는 지금 사회에 맞게 새롭게 개발된 기술, 기계도 다루고 있었다. 그 중에서는 교육 분야에서 사용되는 것들도 다루고 있었는데, 예전의 교육환경과 달리 지금은 발전된 기술이 적용되는 교육환경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인간과 삶’이라는 강의는 평소에 가지고 있던 나의 생각과 비교하면서 들을 수 있었던 것 같다. 예를 들어 ‘안락사’와 관련해서 평소에 좋은 쪽이든 안 좋은 쪽이든 한쪽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 쪽으로 생각해볼 수 있어서 좋았다. 이 강의를 들으면서 나의 가치관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다.

내가 강의를 들으면서 집중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정보가 무엇이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고 강의를 들어서인 것 같다. 앞서서도 말했듯 내가 평소에 경험하지 못한 분야들의 강의가 더 많았기에 내가 이 강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무엇이고 그 정보가 나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될지 생각해보는 것이 학습에서 가장 포커스가 맞춰진 부분이었다. 강의를 들을 때 무작정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니라 강의 제목을 보고 어떤 내용을 다룰까에 대해 미리 생각을 해보고 그 생각을 바탕으로 강의내용과 비교하면서 들었다. 그 부분에서 나의 생각과 맞는 부분도 있었지만 맞지 않는 부분도 많았다. 물론 내 전공 분야가 아니기에 생각하는 것에 있어 한계가 많은 것도 사실이었다. 그렇지만 미리 생각해보는 활동은 내가 강의를 듣는 것에 있어서 더 흥미를 느낄 수 있게 해준 것도 사실이다. 그것이 나만의 학습법 노하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다른 사람들도 강의 내용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강의 내용과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식을 비교해보는 것을 많이 하긴 한다. 그러나 나는 강의 주제, 제목을 보고 사전에 먼저 생각해보고 강의를 듣고 그 생각과 비교 분석 했다는 것이 차별화 되었다고 생각한다. 전공분야와 관련된 강의였다면 사전에 생각해보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차별화될 수 없었으며, 오히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이는 전공 분야가 아니었기에 더욱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했다. 또, 본교에서도 이런 강좌들을 실시하지만 수강신청에 실패 하게 되면 들을 수 없는 강의지만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은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강의이기 때문에 누구나 의지만 있다면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한국

형 온라인 공개강좌가 없었다면 쉽게 접해보지 못했을 내용을 쉽게 접하게 되니 더 다가오는 것이 많았고 느끼는 것도 많았다. 처음에는 나처럼 어려움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럴 때는 무작정 혼자서 하는 것 보단 그 내용을 전공하고 있는 친구의 도움을 받거나 그렇지 않은 친구일지라도 함께 그 내용에 대해 토론하면서 공부해나가다 보면 배우게 되는 내용도 많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내가 그랬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내년에도 이러한 강좌가 개설된다면 들을 의향이 상당히 높게 내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다. 내년에도 듣게 된다면 사전에 미리 무슨 강좌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사전 지식을 좀 쌓아서 강의를 듣고 싶다. 왜냐하면 강의를 0의 상태에서 들으면서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재미있는 과정이었고 충분히 좋았지만 사전 지식을 좀 쌓아서 들으면 좀 더 흥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또 실제로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내용을 다루는 강의라면 더더욱 들을 의향이 있다. 왜냐하면 인간과 삶이라는 강의에서 다뤘던 내용처럼 평소에 그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주제도 새롭게 다가오는 것이 많았기 때문이다. 강의를 통해 어느 한쪽의 입장이 아닌 양쪽의 입장에서 좀 더 개방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이러한 공개강좌가 생겨난 것에 대해서 매우 만족한다. 기회가 된다면 이를 모르는 친구들이나 선배, 후배들과 함께 들으며 사고를 확장시켜 나가고 싶다. 그것이 바로 내가 이 수기의 제목을 ‘나에게 다가온 큰 도움’이라고 지은 이유이다. 모든 부분에서 만족스럽지만 다만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전공분야와 관련된 강좌도 개설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다양한 분야에 대해 다루는 강좌가 많은 도움이 되었지만 전공 분야와 관련된 강좌가 개설된다면 전공 지식 확장에도 도움이 되고 생각해보지 못한 주제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는 사고의 장이 펼쳐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수상 임상혁

비전공자라고?
K-MOOC만 믿고 따라와!



비전공자라고? K-MOOC만 믿고 따라와!

참여강좌 음악과 미술 사이 / 인간과 삶 / 제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의 이해 /
IoT 응용 프로그래밍 / IoT 기술의 이해 / 빅데이터 분석 기술의 이해 /
파이썬 기반 빅데이터 처리 및 분석 기술

현재 AI와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변하면서, 초등학교에서는 C 프로그래밍과 파이썬 프로그래밍과 같이 각종 코딩 수업을 하기 시작했고, 대학교에서도 코딩을 교양필수로 넣을 만큼 우리 삶에 밀접한 부분으로 속해있다. 현재 제약공학과에 재학 중이라 코딩을 접해볼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학교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활동을 찾아보던 중 광장에 있던 K-MOOC 수강 안내 게시글을 보게 되었다. K-MOOC이란 온라인을 통해 누구나 원하는 강좌를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온라인 공개강좌 서비스인데, 우리 학교에서는 SW 중심대학이라 그런지 SW 강좌에 중점을 두었다. 평소 코딩을 배워보고 싶던 나에게 좋은 기회라 K-MOOC에 참여하게 되었고, 음악과 미술 사이, 인간과 삶, 제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의 이해, IoT 응용 프로그래밍, IoT 기술의 이해, 빅데이터 분석 기술의 이해, 파이썬 기반 빅데이터 처리 및 분석 기술, 총 7개의 강좌를 신청하여 학습을 진행하였다.

파이썬을 제외한 6개 강좌는 7월 1일부터 개설되었기 때문에, 여름방학 때 시간표를 만들어 수업을 들었는데,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에 한 강좌씩 듣고 일요일에는 나만의 시간을 가졌다. 첫 주에는 오리엔테이션이 있는 과목도 있어 '하루에 한 강좌씩 들으니까 생각보다 할 만하네?'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3주 차, 4주 차가 되면서 시간표대로 흘러가지 않게 되었고 결국 4주 차부터 7주 차까지의 강좌가 밀리고 말았다. 이때 나는 자책감을 느끼게 되었고, 강좌 종료 전까지 이수기준을 꼭 넘겠다고 다짐했다.

시간표를 다시 재정비해 하루에 3~4과목씩 듣기 시작했고, 강좌 마지막 주에 기말고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매 수업 시간마다 노트 필기를 하면서 내용을 정리했다. 또한, 매주 강의를 듣고 난 후 퀴즈가 있었는데, 노트 필기한 내용을 충분히 공부한 후 퀴즈를 풀면서 복습하는 형태로 학습을 진행했다.

하지만 7개의 강좌를 빠르게 듣는 만큼 시간이 촉박하였고 내용이 어려워 이해가 잘 되지 않았던 강좌들도 있었는데, 음악과 미술 사이, 파이썬 기반 빅데이터 처리 및 분석 기술, 제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의 이해가 나에게서는 어려웠던 강좌들이었다. 먼저 음악과 미술사이는 오르페우스, 불협화음, 바그너와 현대예술 등 각 시대마다 존재하던 음악과 미술을 배웠는데, 강의 자체는 좋았지만, 내용을 잘 따라가지 못하였다. 그래서 수업을 듣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발생하면 체크를 한 후, 이해가 충분히 될 때까지 3~4번정도 돌려보며 공부했다. 그다음, 파이썬 기반 빅데이터 처리 및 분석 기술은 코딩을 처음 배워보는 나에게서는 조금 벅찬 과목이었다. 파이썬의 기본 개념과 Numpy, Pandas, 회귀, 분류, 군집 분석 등 다양한 분석 방법들을 배웠는데 교수님이 설명을 잘 해주셔서 이해가 잘 되었다. 하지만, 매주 과제가 있어 강의를 볼 때는 이해가 잘 되었던 내용에 대해 과제를 진행하려고 하니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파이썬을 수강했던 친구에게 도움을 청했고, 도움을 받은 후, 왜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는지 생각했다. 그 결과 파이썬 강좌를 들을 때는 나도 같이 실습해야 공부가 된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다음부터는 같이 따라 하면서 이해를 했다. 제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의 이해는 내용이 너무 방대하여 힘이 들었다. 그래서 노트 필기가 아닌 한글 타이핑 형태로 공부를 진행하였고, 결국 이수하며 성공적으로 공부를 하였다.

처음에는 1~2과목 정도 이수를 할 생각으로 K-MOOC를 들었지만, 음악, 인성, SW와 같이 다양한 분야의 강의를 듣다 보니 흥미가 생겼고 결국, 수강신청 했던 7개의 강좌 모두 이수하는 데 성공하였다. K-MOOC를 통해 SW에 관심을 가져 다음 학기부터 빅데이터 공학과를 복수전공 할 생각이다. 학교에서 주최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참여하고 지식을 쌓는다면, 정말 회사에서 원하는 융합형 인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앞으로도 학교 공지사항을 확인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이다.



우수상 윤도영

흥미로 심어 기른 좋은 결과



흥미로 심어 기른 좋은 결과

참여강좌 IoT 기술의 이해

IoT라는 것은 나의 전공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다. 소프트웨어관련 교양수업을 들으면서도 나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다. 평소 내가 관심을 두지도 않았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인 오늘날 이런 것과 거리를 두어선 안 된다고 느꼈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런 것을 내가 거부한다고 세상이 멈추는 것도 아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의 흐름에 발 맞춰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학교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 중, 사물인터넷이라는 기술이 매우 신기하고 흥미롭게 느껴졌다. 사물 인터넷은 각종 사물에 센서와 통신기능 등을 넣어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이다. 컴퓨터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물건들, 심지어 책이나 연필도 인터넷에 연결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나의 생활 속에 다가올 기술인데 모르는 척 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사물과 사물이 서로 대화를 하듯 인터넷으로 연결된다는 것은 놀라운 것이다. 그래서 나는 수업 시간 중 사물 인터넷에 대해 간략히 들은 것을 넘어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하였다. 이미 학교 수업을 듣고 있었기에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강의가 필요했다. 그러던 중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라는 좋은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K-MOOC 강좌 중에 “IoT 기술의 이해”라는 강좌가 있어 듣게 되었다. 무엇보다, 전공지식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 교양 차원에서 이러한 내용을 배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융합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물 인터넷에 대한 개념 외에도 예시와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들에 대해

서도 배울 수 있었다. 어렵פות이 알고만 있던 아두이노에 대한 것도 아두이노 스케치하는 법과 예시 등,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아두이노는 사물을 인터넷에 연결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었다. 당장 내가 시도해 볼 수도 있는 것이었다. 내가 평소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IoT분야라 이해가 어렵기도 했지만, 학교 수업시간에 들었던 용어들이 등장해 익숙한 부분도 있었다. 수업 내용보다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점이 참 좋았다.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점도 물론 있지만, 학교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이 떠올라 ‘어, 이거!’하고 속으로 감탄했다. 학교수업의 복습차원에서도 도움이 되었고, 학교 수업에 흥미를 더 가지게 되었다. 게다가 강좌의 차시마다 적절한 퀴즈가 있어서 내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알 수 있었고, 틀린 퀴즈를 통해 내가 모르는 것도 알아낼 수 있었다. 학교 수업의 초반기에는 수업 내용에 대해 자신이 없었지만, K-MOOC강좌 덕에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 특히 시험공부에 도움이 되어 만족스러운 점수를 받게 되었다.

또한 가볍게 개념만 훑지 않고 자세한 실용적인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 아두이노나 라즈베리 파이와 같은 것이 IoT기술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알게 되었다. 앞으로 다가올 기술이 나의 생활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니 집중하여 들을 수 있었다. 회로를 구성하거나 직접 수행해보는 과제와 내용은 무척 어렵게 다가왔지만, IoT기술의 역사와 활용법등은 배워 이해할 수 있었다.

자칫 강좌를 듣고자 마음은 먹어도 끝까지 듣지 못하는 수가 있다. 하지만 K-MOOC에서 이메일을 통해 강좌 수강 독려를 해주어 해이해지지 않고 강좌를 수강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나 혼자 강의를 들으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K-MOOC에서는 게시판을 통해 다른 수강생들과 토론도 할 수 있어 나의 지식의 단계를 개척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또한 조금씩 어려워지는 퀴즈의 난이도와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과제들은 나에게 새로운 도전이었다. 퀴즈는 배운 내용을 상기시키는데 도움이 되었고, 아두이노 스케치를 작성하고 업로드해보는 과제에 매달리며 없었던 능력을 발굴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이 강좌를 더 파고 들어가면 어디서 쉽게 얻을 수 없는 전문적인 지식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실습과정도 누구나 편리하게 따라해 볼 수 있으며 궁금한 점을 질문할 수도 있다. 질문을 통해 더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처음 강좌를 들을 때는 어색하고 거부감이 들었지만 나의 작고 사소한 흥미 하나로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사소한 것으로도 큰 것을 결국 얻게 된다는 것을 깨

달았다. 작은 관심으로 4차 산업 혁명시대라는 막연한 개념을 나의 생활에 접목하여 생각해보게 되었고 학교 수업도 더 집중하여 듣게 되었다. 좋은 성적이라는 과실은 덤이다. 이러한 강좌는 무엇보다도 시간과 공간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어디서나 자유롭게 들을 수 있다. 4차 산업 혁명시대에, 새로운 기술에 관한 강좌를 듣는 것은 사고의 폭을 넓히고 유연한 사고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우수상 김아현

강의로 인한 나의 계획



강의로 인한 나의 계획

참여강좌 음악과 미술 사이

제가 시각디자인학과를 다니고 있기에 미술 관련 강의를 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고 원래 미술과 음악을 어릴 때부터 좋아해서 음악과 미술을 연관시킨 강의가 있어 흥미롭게 보아 이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강의에서 미술과 음악을 사랑한 다양한 예술가들에 대해 그리고 음악과 미술이 다양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고 이 강의에서 저는 미술과 음악이 상호작용한 사례 중 음악을 사랑하는 도시 빈에서 24미터의 벽화가 된 베토벤 교향곡 9번의 이야기를 들으며 정말 미술과 음악을 혼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림 작품의 이름을 음악으로 표현해 자신의 관심을 표현하지 않는다는 점이 되게 신비로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작품이 의미가 없고 단순히 일러스트가 되길 원했다는 점에서 되게 멋지고 일반적인 그림이 되지를 않기를 바라는 점이 정말 예술인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없는 음악을 알레고리를 여성(여신)으로 표현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파리 음악 박물관을 보여주시며 이런 박물관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토벤 교향곡 9번을 통해 빈 분리파 전시관 탐방을 하며 이러한 곳이 정말 예술가를 위해 세워졌다는 것이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모네나 다양한 예술가들이 그림을 음악과 연관해 그렸는데 제가 디자인공부를 하며 과제로 음악을 표현하는 포스터를 만드는 작업을 했었는데 제가 이런 포스터를 만들었을 때와 비슷한 방법으로 그림을 그려서 되게 신기하고 이전의 사람들도 음악과 미술을 연관시켜 발전되기를 원한 점이 되게 멋졌습니다. 그리고 파울 클레가 자신이 추구한 좀

더 높은 차원의 회화인 플라포니를 통해 1930년대부터 다양한 형식 요소를 결합해 복잡한 구성에 적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축제로서의 예술인 플럭서스를 통해 누구나 예술인이 될 수 있고 또 전문가만의 예술만이 예술이 아님을 나타낸 점이 되게 혁신적이고 멋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이 강의는 우리가 음악과 미술을 같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텐데 이러한 생각을 다시 해 보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예술가의 예시와 그림을 보여줘 이해하기 쉽게 도와주었고 부담스럽게 듣지 않아도 되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강의에 나온 짧은 퀴즈로 더욱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것 같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 저는 원래 피아노, 플룻 등 악기를 다루는 것을 취미로 하였고 디자인 과로서 미술도 배우고 있었는데 서로 융합하여 음악과 미술을 해보는 것도 재미있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관점을 폭넓게 봐 더 자유롭고 다양한 방향의 디자인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디자이너로서 그냥 이미지적인 디자인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적으로도 다른 분야로도 디자인을 표현할 수 있도록 더 공부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술과 음악의 다양한 박물관과 작품을 보여주셨는데 이러한 작품들이 있는 곳에 여행을 가서 구경해 보고 싶다고 느꼈습니다. 또, 일반인 또한 예술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에 의의를 두어 일반 고지식한 예술이 아닌 자유로운 예술을 도전할 것이며 누구나 일상에서 예술을 도전할 수 있도록 그러한 환경을 만들 것입니다. 저는 예술이 전문적인 것에만 한정적으로 보았었는데 비전문가라도 누구나 상상하며 그릴 수 있고 예술을 창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이전에도 여러 예술가가 나왔던 것처럼 예술을 배우고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배울 수 있고 예술을 창작할 수 있는 세상이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반 강좌라 생각하여, 되게 지루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되게 상식적으로 도움이 된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또,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다양한 방면의 지식을 쌓아야겠다고 생각하였고 이 강의의 내용을 조금 더 공부해 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런 강의를 통해서 일상의 다양한 지식과 조금 더 폭넓은 세상에서 보는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저의 학습계획방법은 먼저 배우는 것의 주제를 보고 생각하며 어떤 강의를 배울까 생각하고 그다음 강의를 들으며 내용을 정리하고 내용을 중심으로 더 궁금한 점이나 관련된 내용도 함께 보며 마인드맵으로 정리합니다. 그리고 각각 다른 관점의 기사나 논문을 보면서 더욱 지식이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시각디자인과에서 전공은 일반 논문이나 시험을 치지 않고 있는데요. 저는 시험 대신 과제를 제출하여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과제는, 저는 문제에 대한 여러 자료를 먼저 찾고 그 자료에 문제 점을 세분화한 다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은 후 그 해결책을 보면서 가장 실현 가능한 것을 뽑은 후 그것에 맞게 진행 과정을 수립한 후 아이디어 스케치를 통해 다양한 방면에서 어떤 형태, 어떤 기능의 물체가 어울리는지 보고 가장 좋은 디자인을 선별해서 교수님들과의 상의하는데 예를 들어, 이메일로 일반 수업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에 부족한 점이나 고칠 점이 있는지 묻거나 교수님 사무실에 따로 찾아가서 물어보는 등 합니다. 그리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한 만큼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서로의 과제를 공유하며 괜찮은 과제물이 나올 때까지 비교하며 디자인을 완성합니다.



우수상 송혜진

인간과 삶을 통한 나 돌아보기



인간과 삶을 통한 나 돌아보기

참여강좌 인간과 삶

처음 k-mook 강좌를 수강할 수 있게 된 계기는 공지사항을 보고 알았다.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 사이버 강의를 더욱 친근하게 들을 수 있는 지금 시기에 조금 더 다양한 강좌를 보고 듣는 것이 가능하고, 더군다나 무료로 제공하는 강좌이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갔다.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강좌가 있었고, 개인적으로 과의 특성 때문에 전공과목 이외의 교양은 거의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교양’과목을 선택하려 했고, 그 중에서 ‘인간과 삶’이라는 과목을 선택하였다. 많은 과목 중 이 과목을 선택한 이유는 최근 ‘내가 살아갈 이유’라는 책을 읽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듣고 싶었다. 나의 과 특성상 교양 과목을 들을 기회가 적고 특히 삶에 대한 강의를 들을 기회는 거의 없었다. 그래서 꼭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책으로 읽는 것도 좋았는데 직접 강의로 들으면 더 와닿고 하시고자 하는 말이 더 잘 전달될 것 같았다.

이 과목은 유혜숙 교수님, 박용욱 신부님, 임재우 신부님 이렇게 3분이서 함께하는 팀 교양과목이다. 주제는 우리가 평소 많이 생각을 하지만 쉽게 접하거나 얘기를 하지 못하는 삶, 인간, 죽음 이런 생소하고 상징적인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신다. 과제는 어떤 한 주제에 대해 글을 적어보는 것을 내 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아주 좋은 방법인 듯 하다.

그리고 나는 수업을 들을 때 항상, 종이 1장 정도를 준비했다. 과목의 특성상 나열하는 식이 아니라 큰 주제에서 가지 치듯이 켜어나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한 주제를 가운데 원으로 그리고 적어둔 뒤, 가지치기를 하듯이 수업을 필기하였다. 이 필기법이 더 효율

적인 이유는 어느 하나 정해진 것이 없지만, 큰 카테고리를 정하고 수업을 듣기 시작하면, 교수님의 말씀 또한 필기를 하겠지만 자신이 어느 부분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들었고, 어느 부분이 더욱 자신의 생각과 일치 하는지를 더 본질적으로 파악할수 있다. 강의를 다 들은후 다시 보았을 때에도 더 쉽게 알 수 있고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더욱이 교수님들이 수업을 하실 때, 현실적인 지금 일어나는 사건과 현시대의 문제점을 같이 얘기해주시고, 그런 문화로 인해 지금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라는 인과 관계를 잘 설명해 주시고, 많은 예시를 들어가며 얘기를 해주셔서 이해를 하기가 더 쉬웠고, 어려운 주제일수도 있었으나 좀 더 이해를 하기 쉬운 듯 하다. 예시가 이해를 도울 뿐만 아니라 후에도 기억에 더 많이 남았던 것 같다.

그리고 수업마다 옆에 영어로 번역본을 같이 사이트에서 제공해 주는데, 충분히 외국 교환학생이나 외국인 학생들이 이해를 하기 쉽게하려는 편의적 제공이라서 좋은듯하다. 우리 학교에도 외국인 학생들이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들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다.

물론, 이 강좌 또한 성적을 내야하기 때문에, 성적순으로 학생을 나누기는 하지만, 이 강좌의 목적과 조금은 반하는 듯 하여 조금 아쉬운점이 있다. 줄을 세우는건 인정을 하지만 일반 교과목 시험과는 달리, 이런 주제를 교양으로 듣게 되는 학생들에게 이 주제를 편협적으로 외우는 방식으로 교양 시험을 치르는게 아니라, 자신이 ‘죽음’, ‘탄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수업을 듣기 전과 후가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가 더욱 의미있는 과제이자 이 수업의 본질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점은 조금 아쉬운 것 같다.





대상 임예은

K-MOOC로 심리학 배워서 두 마리 토끼 잡기
(자격증과 내면 이해)

대상 ▶ 임예은

K-MOOC로 심리학 배워서 두 마리 토끼 잡기 (자격증과 내면 이해)



참여강좌 『내 안의 세상을 만나는 치유여행 -실존과 심리치료의 만남』

저는 타학교 및 타기관 K-MOOC 중 『내 안의 세상을 만나는 치유여행 -실존과 심리치료의 만남』 강좌를 수강하였습니다. 언어청각치료학과에서 배운 전공 지식을 토대로 졸업 할 때 언어재활사 2급 자격증과 청능사 자격 모두 취득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열심히 공부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모래놀이치료에도 관심이 많고 모래놀이치료는 언어치료와 접점이 정말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한국모래놀이치료학회의 모래놀이상담사 자격증 취득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본교 가톨릭청각음성언어센터에서 모래놀이치료 관찰 실습도 진행하고 있으며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일단 모래놀이치료(sand-play therapy)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아동의 내적 세계에 접근하기 위하여 고안한 아동심리치료기법으로, 모래상자를 이용한 놀이치료 기법입니다. 모래놀이를 통한 인지발달, 정서발달, 사회성 발달, 언어발달, 신체발달 등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촉진시켜주며 성취감, 자신감, 긍정적 자아개념을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사회적 적응을 돕고 의사소통 기술이 발달하는 등 이러한 점에서 언어치료와 접점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래놀이치료는 언어치료처럼 상담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담자가 스스로 만든 내적 세계에 대한 집중과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내담자를 판단하지 않고 창조적이고 의미를 만드는 과정을 관찰하는 능력 또한 중요한데, 이런 능력들을 갖추기 위해서는 심리학을 절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모래놀이치료와 심리학에 대해 공부하고자 결심했을 때, 관련된 교양 과목을 듣거나 학원을 등록해 보고자 하였지만, 이미 언어치료와 청능재활에 관한 전공 공부를 하느라 여유가 없는 상태였고 시간적 또는 금전적인 부분이 맞지 않아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부담 없이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K-MOOC에 대해 알게 되었고, 한계에 부딪혀 배움을 미뤘었던 심리학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K-MOOC를 통해 심리학에 대해 배우고, 아직은 멀지만 모래놀이치료 자격증을 취득이라는 목표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본 강좌를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강좌의 내용은 인간의 존재(실존적 존재로서의 인간, 통합적 존재로서의 인간, 실존 통합적 존재의 인간정신), 실존적 인간의 특성(자기초월적 존재로서의 인간, 의미를 추구하는 인간, 본래적 삶), 인간심리의 핵심(존재감의 특성 및 형성요인, 존재감 발달과정 및 특성, 삶의 태도 유형), 내 안의 세상(내면세계의 특성과 소외에 대한 이해, 정서적 그리고 인지적 특성에 대한 이해) 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심리학에 대해 공부를 하다 보니 처음에는 자격증 취득을 위해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수강 목적이었지만, 꼭 모래놀이치료 외에도 저 자신의 내면에 대해 이해하고 알아가는 등 정말 많은 측면에서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더 열심히 학습했던 것 같습니다. 나의 내면, 존재, 삶 등에 대해 깊게 고민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른 강좌에서는 과제 제출란에 꼭 강의 내용에 대한 과제를 제출하곤 했는데, 이 강의에서는 강의 주차마다 강의소감을 작성하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곳에서 수강자들끼리 생각을 나눌 수 있다는 점이 좋았고 더 나은 강의를 위해 수강자들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교수님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학교에서 모래놀이치료 관찰 실습을 하며 의문이 들었거나 평소에 문득 궁금해졌던 부분들이 강의에서 나와서 흥미로웠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요약하여 노트에 메모를 하였고, 단순히 암기하기 보다는 이해 위주로 학습하였습니다. 이해가 잘되지 않는 부분은 마인드 맵을 그려보며 학습하였습니다. 이미지가 주는 직관성이 확실히 도움이 되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게 전체적인 내용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며 공부를 하니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요약이 가능해지고, 그 요약된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리학을 처음 접했지만 강좌 내용이나 난이도 등이 저의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데 충분히 적절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교수님

께서도 이해하기 쉽게 강의 내용을 전달해주셔서 좋았습니다. 강의 교안도 핵심 내용만 요약해서 PPT 형식으로 올려주셔서 학습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측면에서 자기계발에 도움이 많이 되어서 정말 보람찬 것 같습니다. 방학때도 K-MOOC에서 심리학과 관련된 강좌를 수강하며 열심히 공부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좌를 진행하신 교수님께서 하셨던 말이 인상 깊습니다. “만남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러 차원의 만남 가운데 자신과의 만남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이 강좌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만나고 타인과의 치유적 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수님 말씀처럼 저 자신에 대해 이해하고 심리학적인 지식과 안목, 관점을 키워나가서 훗날 모래놀이치료사로서 누군가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우수상 전혁진

든든한 버팀목, K-MOOC강좌

최우수상 전혁진



든든한 버팀목, K-MOOC강좌

참여강좌 의료인을 위한 현대적 리더십(안상윤, 건양대학교)

참여목적 :

취업을 앞둔 시점에서, 다른 분야의 강좌보다 제 분야와 관련된 강좌를 듣고 싶었습니다. 미래에 의료인을 꿈꾸고 있는 사람으로서, 의료인에게 유익한 강좌들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결국, 의료인이 되었을 때, 필수조건인 리더십과 팔로워십을 키우기 위하여 ‘의료인을 위한 현대적 리더십’이라는 강좌를 선택하여 청강했습니다. 이미 수강 날짜가 지났지만, 청강이라는 선택지가 있어서 많은 학우들이 언제나 들을 수 있는 큰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학습과정 :

K-MOOC 강좌의 장점이기도 한데, 강좌를 따로 정해진 시간 내에 들어야 하는 시스템이 아니기에, 마음 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학교 수업과 수업 사이 시간이 날 때마다, 머리를 식히고 싶을 때마다 등 마음 편히 들어가서 강좌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벼운 생각을 하고 들어간 제가 부끄러워질 정도로 강좌의 질은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때문에 학습하는 과정에서 강좌에 더욱 흥미를 가지고 임할 수 있었습니다.

학습성과 : K-MOOC 강좌를 들으면서 가장 좋은 점을 꼽자면, 내가 어디에서 배울 수 없는 강좌를 무료로 들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청강한 ‘의료인을 위한 현대적 리

더십’을 예를 들겠습니다. 보통 ‘리더십’이라는 주제를 가진 많은 강좌들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만 보더라도 교양과목에 있을 정도로 누구나 들을 수 있고, 보편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의료인뿐만 아니라 특정인에 대한 리더십 관련 강좌는 찾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K-MOOC 강좌에서는 특정 분야 관련한 강좌들이 많았습니다. 자기 분야와 관련한 강좌를 듣게 된다면, 다른 분야의 사람보다 이해력 빠를 것이기에 학습 성과는 당연히 좋은 결과를 이뤄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제가 이 강좌를 청강하면서 의료인으로서 갖춰야 할 덕목과 리더십을 다른 누구보다 빠르게 이해하고, 흡수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계획 :

현재도 K-MOOC 강좌를 수강하고 있습니다. 이미 경험을 통해 이 강좌들이 많은 이로움이 있는 걸 알았기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강을 할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은 K-MOOC 강좌를 조금 더 빨리 알았더라면, 더욱 많은 혜택을 누렸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전공, 분야에 맞는 강좌도 있고, 상식, 유용한 정보들을 담은 강좌들도 많기에, 이 강좌의 활용성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요즘에 주변 친구들에게 K-MOOC에서 강좌를 꼭 수강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많은 홍보가 이루어져, 많은 사람들이 K-MOOC 강좌의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만의 학습법 노하우 :

제가 ‘의료인을 위한 현대적 리더십’강좌를 선택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는 곧 학습법과 강좌를 선택하는 노하우에 해당합니다. 첫째, 이 강좌는 제 분야와 미래의 꿈과 관련한 강좌입니다. 제 분야와 다른 강좌를 듣는 것도 새로운 정보를 얻는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지만, 본인의 분야와 같은 강좌를 수강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학습 효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으로써, 의료인에 관련된 학습내용이 제 미래의 직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다고 생각이 들었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더욱 진지한 자세로 강좌에 임했습니다. 결국 의료인이 되었을 때 리더로서의 자질, 팔로워십 등을 더욱 직관적으로 배웠고, 어느 순간 이 강좌에 몰두해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둘째, 학교에

서 배우는 과목과 유사한 강좌를 듣는 것입니다. 저는 현재 학교 교양과목에서 ‘리더십’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보편적인 리더십에 관하여 배우고, 방에 들어와서는 의료인의 리더십에 관하여 배웁니다. 이는 각 강좌를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주로 비슷한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복습의 차원이 될 수도, 예습의 차원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본 강좌를 수강할 때 이해하고, 습득하는 과정에서 더 많고, 질 좋은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총평 :

K-MOOC 강좌는 저에게 단순히 강좌의 개념을 넘어, 버팀목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느새 제 일상 속을 파고들어, 저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수강을 하게 된다면 저의 인생에서 선한 영향을 줄 수 있으리라 확신이 듭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K-MOOC 강좌와 같은 버팀목을 하나씩 만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강좌를 수강할 수 있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우수상 윤도영

좁은 사고를 넘어 넓은 세상으로

좁은 사고를 넘어 넓은 세상으로

참여강좌 장애, 체육을 만나다.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이 개최되었다. 비장애인의 동계 올림픽이 막을 내리고 이어 장애인 올림픽인 패럴림픽이 열렸다. 패럴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은 장애인 체육을 하는 사람들이다. 장애인은 어떤 체육을 하고 배우는 것일까. 장애인은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불편함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들에게 비장애인과 같은 시설과 프로그램을 실시하기엔 무리가 있다. 장애인의 체육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장애의 개념은 무엇이고 누가 정의한 것일까. 이런 의문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에서 강좌를 찾아보게 되었다. 또한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라는 자격증의 공부를 하고 싶기도 했다.

강좌의 첫 시간은 장애에 대한 개념과 오해를 푸는 시간이었다. 길으로 드러나는 신체 장애만 단순히 생각하고 살았지, 장애의 분류는 나의 생각보다 훨씬 다양했다. 나의 짧은 지식을 수정할 수 있어 다행이라 여겼다. 장애의 종류와 그에 따라 겪는 어려움을 배우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생각해보기도 했다. 시설부분에서 배려해주기도 해야 하고, 체육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도 고려할 점이 있을 것이다. 육체적 장애 말고도 다운 증후군 같은 정신지체 장애에 대한 세세한 분류와 특징을 배울 수 있었다.

이론적인 수업 외에 강의자가 현장의 장애인 시설을 보여주며 직접 설명한 점이 인상 깊었다. 영상 속의 장애인을 배려한 시설을 보면서 우리 주변엔 과연 그러한 시설들이 있는지 살펴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장애인 체육을 위해서는 체육 시설의 접근성이 우선이다. 시설 출입이 불편하면 프로그램에서도 멀어질 수밖에 없다. 내 주변의 시설은

턱이나 경사로 등이 잘 마련되어 있는지를 보며 생활 속에 적용해볼 수 있었다. 프로그램 부분에선 어떻게 하면 장애인들의 희망사항을 반영할 수 있을지, 이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장애의 유형에 따라 어떤 방법으로 기존의 프로그램과 다르게 변형하여 해야 하는지를 고민해보는 유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프로그램은 일회성에서만 그칠 것이 아니라 꾸준히 참여하고 이들의 신체활동 재활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배웠다.

공부는 조금하게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것은 잊기 쉽다. 천천히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K-MOOC의 강좌는 학교 수업처럼 주차마다 강좌가 열린다. 그래서 하나씩 꾸준히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된다. 커리큘럼대로 따라가기만 해도 도움이 된다. 이 강좌의 내용이 당장은 내게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 들은 내용을 나중에 보면 기억이 나기 쉽게 노트에 필기를 했다. 게다가 질 좋은 수업 자료가 있어 다운로드해서 볼 수 있었다. K-MOOC의 강좌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처음엔 스스로 하기 어려웠지만, 과제와 퀴즈 등을 하나씩 수행해가면 자기주도적인 공부 습관을 기를 수 있었다. 퀴즈 외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도 있어서 실력을 점검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이렇게 기른 습관은 어디 가지 않고 앞으로 하게 될 자격증, 학교 공부 등 다른 공부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배운 강좌의 내용은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공부를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필기시험 내용이 막연했는데 강좌의 설명을 들으니 안개가 조금은 걷힌 것처럼 느껴진다. 또한 학교에서 조만간 배울 특수체육 과목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미리 연습을 이렇게 하게 되면, 앞으로의 본 수업에서 더 이해가 잘될 것 같다.

앞으로 이 강좌의 퀴즈와 과제에 잘 참여하면서 자격증의 필기시험에도 합격하고 학교 시험에서도 자신감을 갖고 좋은 성적을 얻을 것 같다. 좋은 성적뿐만 아니라 이 강좌의 목적 중 하나대로 장애인에 대한 편협한 사고를 없애고 이들에 대한 시각을 바꿀 수 있었다.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스포츠의 기회를 확대시켜야 한다고 느꼈다. 이 강의를 듣는다고 지금 당장은 전문가가 될 수는 없지만, 나의 전공과 관련이 있으니 앞으로의 전문성을 갖추는데 도움이 되는 강의라고 생각한다.



우수상 양형주

K-MOOC 강좌로 꿈에 한걸음 더 다가가기

K-MOOC 강좌로 꿈에 한걸음 더 다가가기

참여강좌 교육심리



K-MOOC 교육심리 강좌를 처음 접한 계기는 사범대학 교육학 스터디 멤버의 추천을 통해서였다. 지금은 탈퇴를 하여 참여하지 않지만, 사범대학의 도움으로 모인 교육학 스터디에서 나는 다른 그룹원의 학습속도에 따라가기 어려웠다.

그런 이유는 아직 1학년인 나의 지식이 짧았고, 그렇기에 같은 공부를 해도 이해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이다. 쌓인 지식이 없는 내가 임용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에는 상당히 무리였다.

때문에 임용 시험대비 책까지 샀음에도 불구하고 부적응으로 인해 탈퇴를 하게 되었다. 하지만 남겨진 임용서적은 활용해야 했으며, 어차피 나의 전공과목은 교육학이었기 때문에 교육학 서적의 활용은 학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었다.

교육학 임용 인터넷강의를 따로 수강하지 않는 나로서는 인강 전용의 책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 생각난 것이 스터디 멤버가 추천해주었던 K-MOOC 강좌였다. K-MOOC 강좌는 온라인에서 우리 대학의 학점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방법이었고, 거기에 타 대학의 교수들의 강좌도 엿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때문에 나는 K-MOOC 강좌를 적극 활용하기로 하였으며, 그중에서 가장 관심 있게 공부하는 과목인 교육심리 강좌를 우선으로 수강하였다.

먼저 교육심리 강좌를 수강한 이유는 교육학의 많은 과목 중에서 교육심리가 내게 가장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는 과목이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대학에서도 교육심리를 전공 과목으로 수강하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공부하면 효과가 배가될 것이라 생각하고 수강하였다.

교육심리 MOOC 강좌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전공 강좌에서 배운 내용을 복습할 때에 활용하는 것이었다.

전공과목 강의 시간에는 다른 학생의 발표 시간도 있고, 강의 시간 중에 내용을 놓치거나 단번에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MOOC 강좌를 복습에 활용한다면 내가 이미 들었던 내용을 한 번 더 공부하면서 확실히 내용을 습득할 수 있으며, 전공서만을 가지고 공부할 때보다 강좌 영상을 통해 내용이해를 더 빠르고 쉽게 할 수 있었다.

또한 전공시간에는 전공서의 모든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전공서별로 내용이 다르다. 하지만 MOOC강좌를 통해 전공서적과 다르게 표현된 부분도 알 수 있었으며, 같은 내용이라도 다른 방식의 설명을 들으니 넓은 스펙트럼의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전공과목은 단 한번만 강의를 들을 수 있으나, MOOC강좌는 내가 복습하고 싶은 만큼 여러 차례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이렇듯 나는 전공과목에 대한 본교의 강좌와 MOOC 강좌 두 개를 함께 들을 수 있었으며, 덕분에 임용 준비를 위한 공부와 임용대비 서적의 활용까지 할 수 있었다.

MOOC강좌의 장점은 내가 원하는 과목과 내가 원하는 강좌를 골라 공부하는데 있으며, 대학의 강좌와 달리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으며 언제든 원하는 대로 수강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때문에 앞으로도 MOOC 강좌를 통해 다른 교육학 강좌와 곧 복수전공 하게 될 역사 관련 강좌도 수강할 계획이며, 이를 대학 과목의 보조재로 사용한다면 더 큰 학습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교육심리 강좌 다음으로 수강하길 희망하는 강좌는 교육행정과 교육사회학이며, 이 두 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이유는 교육학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과목이자, 그 내용이 어려운 과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과목들을 복습과 예습에 활용하여 학습효과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후에는 방대한 역사 과목을 MOOC강좌를 통해 예복습하여 해당 과목의 지식을 쌓고, 대학에서 효과적인 복수전공을 위해 활용할

예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중등교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지식과 교양지식의 함양을 위해 교양과목 학습에도 적극적으로 MOOC강좌를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나 K-MOOC 강좌 중에는 대학에서 직접 수강하기 어려운 본교나 타교의 교양과목을 다양하게 이수할 수 있으며 학점제한이 없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수강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점을 잘 활용한다면 대학생으로서 지식탐구의 목적과 중등교원이 되기 위한 올바른 밑거름을 잘 쌓아올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나 이번 학기의 본교 교양과목의 개설 강좌 수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학생의 선택지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MOOC강좌의 활용은 다양한 경험을 원하는 본교 학생이 선택하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이처럼 자신의 전공과목뿐만 아니라, 교양과목, 외국어 과목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MOOC 강좌를 활용한다면 학생 자신의 지적 수준과 지식의 양은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될 것이다.

K-MOOC강좌를 통해 이미 학습효과를 본 나는 다른 이들에게도 K-MOOC을 추천한다. 어렵게 접근하지 말고 나와 같이 복습에 이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K-MOOC을 활용하기 시작하면, 어느새 전공과목의 복습만이 아니라 다양한 과목의 공부를 위해 수강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K-MOOC 교육심리 강좌는 내게 전공과목의 효율적인 학습방법을 완성하게 하였으며, 전공과목 강의에서 배운 것 이외에도 전체적인 교육심리 내용을 학습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때문에 K-MOOC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이러한 활용 학습을 통해 많은 지식을 쌓아가고 진로성취에 한걸음 더 다가가길 희망하는 바이다.

타기관 K-MOOC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



우수상 권혁재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참여강좌 생활 속의 약과 건강

1. 참여목적

사실 약대생 3학년은 약에 대해 심도 있게 배우거나 직접적으로 약을 배우는 강의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택과목에 있어서 일반의약품에 대해 배우는 과목개설되어 있지만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K-MOOC라는 곳을 알게 되었고 또한 일반의약품에 대한 강의가 있어서 듣게 되었습니다.

2. 학습과정

저는 간단하게 2학점짜리 사이버강의 하나를 더 신청했다고 생각하여 시간표 중 가장 여유로운 요일에 배정하여 규칙적으로 수강했습니다. 학습을 하면서 따로 유인물이 없는걸 확인하고 대본이 나오는걸 복사 하여 직접 유인물을 만들어 강의를 수강 하였습니다.

3. 학습성과

이 강의 특징은 한 강의가 끝날 때 마다 퀴즈가 나옵니다. 퀴즈를 풀면서 수업을 복습

하는 방식인데 우연히도 지금 학교에서 진도 나가는 약물을 다루거나 평소 수업 중에 교수님들이 언급했던 약들이 나올때마다 학교 수업내용도 같이 복습이 되고 또 찾아보게 됨으로서 공부의 효율이 높아졌습니다.

하나의 사례로는 물리약학이라는 과목에서 자몽 주스와 verapamil의 음식-약물상호작용을 배웠는데 이 강의에서 고혈압 약과 자몽 주스에 관해 자세하게 다루고 또한 다른 수강생과 토론을 할 수 있어 서로 조사해오거나 추가적으로 더 알 수 있었습니다.

4. 나만의 학습법 노하우

강의를 들으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들을순 없을까 싶어 고민을 하다가 먼저 퀴즈부터 풀어보자 라는 생각에 퀴즈부터 풀게 되었습니다.

사실 퀴즈는 간단한 약의 기전이나 시기적절하게 어떤 약물 사용해야하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주류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학교에서 배운 내용으로 풀 수 있는 문제있었고 한방도 다루는 강의라서 한방쪽은 완전 알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업을 듣기전 퀴즈를 먼저 풀어보면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구나, 또 어떤 부분에서 내가 아는것과 모르는 것이 있다는걸 확실하게 알고 수업에 참여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을 듣기전 해당하는 단원의 문제를 한번 풀어 보는게 더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우수상 송혜진

‘반려견 기본예절 훈련’을 듣고



‘반려견 기본예절 훈련’을 듣고

참여강좌 반려견 기본예절훈련

다른 학교 강좌를 들어볼 기회가 쉽지 않은데, 교환학생이나 이런 학생이 아니라면 더욱 그럴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듣고 싶은 강좌를 찾아 보았다. 우리 대구가톨릭대학교에서는 ‘애견’에 대해 강좌가 따로 없어서, 혹시 있는지 확인을 해 보니 다른 학교에서 만든 강의가 있었고, 강좌에서 특히, ‘기본 예절 교육’ 강좌를 배우고 싶었던 이유는 개인적으로 강아지를 집에서 기르고 있고, 내가 ‘송이(강아지, 반려견)’를 더 많이 좋아하고, 더 사랑할수록 더 많이 알고 배운다면 훨씬 좋은 건주가 될 수 있을 듯 하여 신청을 하게 되었다.

크게 학습과정은 1. 반려견 훈련의 역사, 2. 과학자들의 반려견 행동 연구, 3. 반려견 훈련의 목적과 필요성, 4. 기본 복종 훈련, 5. 놀이 지도자의 자세에 대해 나누어 체계적인 시스템 하에서 공부를 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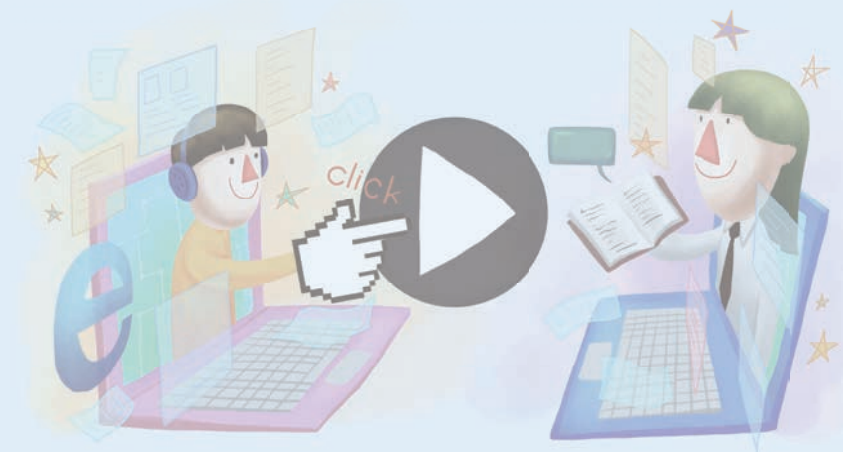
내가 제일 흥미있게 생각한 파트는 4. 기본 복종 훈련 part이다. 지금 듣고 있고, 아직 모든 강의가 열리지는 않아서 앞에까지 조금씩 강의를 들어보고 있다. 솔직히, 예전에는 강아지를 기르고 애완동물을 기른다는 것이 대중화 되기 보다는, 집의 농삿일이나 잡아 먹기위해 기르는 동물의 개념에서 최근의 동반자가 되기까지 많은 과정이 있었고, 나라마다의 많은 개념의 차이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강의를 들으면서 기본 복종 훈련에 대해 강의를 듣는데, 솔직히 너무 유익한 듯 하다. 왜냐하면 크게 두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 강의 자체가 딱딱한 글로 하는 설명이 아닌, 실제 강아지를 데려오는 영상을 보여주고, 실제로 실습을 하듯이 교수님이 설명을 해주신다. 실제, 행동을 이렇게 하면 강아지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알 수있다. 두 번째는, 영상의 편집 효과이다. 실제 강아지가 있어도, 영상의 자막으로 어떤과정을 하는지,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하는지 너무 상세히 잘 가르쳐 주셔서, 실제로 집의 반려견에게 해보고, 가족들에게 알려주고 하는 자체가 너무 유익한 듯 하다.

이 강좌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최선의 학습법은 ‘실습’ 이라고 생각한다.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이 강좌를 보기는 하지만, 자신의 반려견이 없는 사람이 많이 듣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 강좌는 특정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강좌이다. 그런 과정에서 딱딱하게 책상에 앉아서 듣기 보다는, 핸드폰으로 보면서 강아지에게 바로 해보면서, 물론 진도는 느릴수 있지만 차근차근 강아지가 따라오고, 나도 그 과정에서 기쁨을 느끼면서 하는 모든 일괄의 과정들이 너무 가치있고, 강좌의 목적과도 맞다고 생각한다. 강좌의 특성상, 시험이라는 부분이 있지만, 열심히 듣고 반려견과 같이 노력한다면 충분히 패스할 정도의 수준으로 나온다면 더 좋을 듯 하다. 강좌의 목적성에 더 맞는 시험이면 좋을 듯 하다.

처음 알게 된 ‘K-mook’ 이지만, 교양과목, 전공과목등 전 과목이 모두 충분한 가치가 있고, 너무 유익한 과목들이 많고 특히, 이런 특별한 과목을 듣고 싶어하는 나 같은 사람에게는 개인적으로 ‘행복한’ 강의인 듯 하여 주변 친구들에게도 꼭 추천해 주고싶고, 이런 강의를 알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





우수상 김주라

k-MOOC가 교육의 벽이 허물다

우수상 김주라



K-MOOC가 교육의 벽이 허물다

참여강좌 범죄행동의 심리학

저희 약학대학은 약학전공을 제외하고 다른 타과 수업을 들을 기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교과목의 수업을 듣고 싶어서 학교게시판을 찾아보게 되었고 그러던 중에 K-MOOC강좌를 알게 되었습니다.

K-MOOC은 정말 다양한 대학교와 기관에서 강좌가 개설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주제들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K-MOOC이 오프라인수업에만 익숙한 저에겐 낯설고 조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곧 적응하게 되었고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도 수업을 듣는것이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한 강의당 수업강의가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이어도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50분정도 듣는 오프라인 수업보다 집중이 잘됐던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철학이나 심리에 관심이 많고 흥미가 있어서 책이나 유튜브를 통해 배우기도 했지만 너무 정보가 많고 그 많은 정보에서 제대로 된 내용을 찾아서 공부하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를 알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정확한 정보의 내용을 공부 할 수 있었습니다. 대담수업이라고 수업후에 하는 수업이 있었는데 이 수업도 무척 재미있었습니다.

또한 강의 중간 중간에 퀴즈가 있어서 수업중 퀴즈 푸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저는 온라인수업이라는 장점을 이용해서 중간에 필요한 내용은 사진을 찍어 보관하였고 다시 듣고 싶은 내용은 체크해서 다시 들었습니다.

또한 수업중간에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이 생기면 멈추고 생각을 한 후 공부를 하였고 때문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을 따로 주지 않아도 10분정도 수업이기 때문에 10분 수업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쉬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10분이라는 수업이 짧기 때문에 최대한 집중을 해서 들었고 수업이 끝난 후 생각하는 시간(복습)을 바로 가질 수 있었습니다.

어디서든 어느 시간에라도 자유롭게 들을 수 있었고 코로나로 인한 오프라인 수업에 두려움도 없었기 때문에 편하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수업이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온라인수업이기 때문에 자유로웠지만 한편으로는 휴대폰을 하거나 집중을 하지 못할 때도 자주 있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들어야 하지 않기에 밀리거나 숙제처럼 강의를 보게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프라인처럼 정해진 수업시간에 핸드폰을 멀리 두고 본다면 제일 효율적으로 K-MOOC강좌를 활용하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언택트시대에서 K-MOOC강의는 필수적이고 앞으로 미래의 교육의 길이 라고 생각합니다.

K-MOOC강좌가 조금 더 많은 학생들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로인해 우리학교수업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기관에 수업들도 원하면 언제든지 들을수 있는 교육의 문이 더 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다양한 교양수업이 더 많은 학생들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우수상 임상혁

화학에 관련된 학생에게 필요한 입문서

화학에 관련된 학생에게 필요한 입문서

참여강좌 비전공자를 위한 기초 화학(한양대학교)

저번 학기에 유기화학 강의를 수강 했었는데, 각 화합물의 화학적 mechanism을 이해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고, 결국 학점을 내 기준에 못 미치는 점수를 받아 많이 실망을 했었다. 학과 특성상 1학년 1학기 때부터 단계적으로 전공 지식을 배우는 시스템이라 한 과목을 놓치면 그다음 과목을 이해하지 못했다. 본교 K-MOOC의 SW 관련 과목을 수강하고 있던 나는 '본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는 무슨 강좌가 개설되었을까?'라는 호기심을 가지고 강좌를 검색했는데, 인문, 공학, 의약, 예체능, 교육 등 다양한 분야가 개설되어있었다. 강좌를 살펴보면 중, 한양대학교에서 '비전공자를 위한 기초 화학' 강좌가 개설되어 있었고 유기화학에 어려움을 느끼던 나는 일반화학부터 다시 시작해보자는 목적을 가지고 이 강좌를 수강 신청 하였다.

강좌에 들어가 보니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이 있었는데, 박경호 교수님과 장서연, 나선영 조교님으로 구성된 이 강좌는 원자와 주기율표를 시작으로 화합물, 숫자사용, 몰(mol)과 화학식을 배우며 단계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미 4주 차까지 진행이 완료된 상태라 1주 차부터 4주 차까지의 수업을 들었는데 솔직히 제1장과 제2장까지는 '일반화학은 내가 잘 알고 있는 거라 그런지 내용이 쉽네'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매주 퀴즈 시험이 있어 문제를 풀어야 했는데, 보기가 헛갈려 결국 3분의 1 정도를 풀지 못했다.

퀴즈를 풀기 전까지만 해도 자신감이 넘쳤던 나는 자책감이 들었고, 공부 방법을 바꿔야겠다고 다짐했다. 먼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노트 정리를 하며 강의를 들었는

데, 필기 속도가 느려 강의를 멈추고 필기하는 방식을 진행했다. 결국, 한 강의를 끝내는 데 3~4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렸고, 다른 방법으로 컴퓨터에 있는 Word를 이용해 타이핑하며 강의를 들었다. 또한, 타이핑한 내용을 그날 프린트로 인쇄해 4~5번 정도 계속 읽으면서 암기했다. 처음에는 화학은 이해과목이라 생각했지만, 공부를 하다 보니 화학은 이해뿐만 아니라 적당한 암기가 필요한 과목인걸 알게 되었고 일반화학을 복습하는 느낌으로 강의를 들었다.

전공자가 '비전공자를 위한 기초 화학'이라는 강좌를 들은 것이 조금 이상하게 보일수도 있다. 하지만, 이 강좌를 통해 균형 맞춘 화학반응식의 사용 및 총괄성과 같이 내가 헛갈리던 화학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고, '내용을 안다고 해서 자만하지 말자'라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이 강좌는 일반화학을 다시 복습하고 싶은 전공자나 화학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기초 틀을 잡고 싶은 비전공자 사람들에게 정말 유익한 강의가 될 것 같다. 앞으로도 K-MOOC를 자주 이용하여 현재 배우고 있는 전공뿐만 아니라 내가 관심 있는 강좌를 수강 신청해 융합형 인재가 될 것이다.





우수상 이현주

타학교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무료강의가 있다?

우수상 ▶ 이현주

타학교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무료강의가 있다?

참여강좌 단국대학교-의학 세계사 /
울산대학교-가족과 건강: 알레르기과 아토피를 극복하자



1유형에서 말했듯이 K-MOOC 강좌의 참여목적은 이번 학기에 학교에서 현재 수강하는 강의 이외에 본교와 타학교·타기관의 다른 여러 교양이나 현재 지금 전공 이외에도 다양한 여러 전공기초를 쌓고 싶어, 방법을 찾던 중 K-MOOC이라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가 있다고 하여 수강신청을 하였다. 타학교 강좌의 최대 장점은 아무래도 본교 이외에 타학교의 강의를 수강할 기회가 없는데, K-MOOC 강좌는 타학교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큰 장점과 더불어 수 많은 강좌가 있어 내가 관심 있는 강의를 골라서 무료로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강좌의 구성은 각 주차마다 강의를 있고 마지막에 퀴즈가 있는 형식과 실제처럼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강의마다 과제나 에세이 등 제출해야 하는 것도 있다.

본교와 다르게 타학교는 단국대학교 ‘의학 세계사’와 ‘울산대학교의 가족과 건강: 알레르기과 아토피’를 수강하였다. 과목 이름을 보면 보듯이 다 의료/의약 분야인데 ai도 관심이 많지만 사실 진로 쪽이나 나의 전공과도 연관이 되어있으며 요즘 흥미를 두고 있는 분야라 강의를 수강하였고 현재도 틈틈이 강의를 듣고있는 중이다. 특히 ‘의학 세계사’는 과거의 의학이나 현재 전공에서 배우는 내용인 백신과 항생제, 암에 관한 수업을 배우면서 전공에서 막연히 질병과 증상에 대해서만 심층적으로 배웠던 내용이 이 강의를 통해 유래나 역사 그리고 전공수업에서 배우지 않았던 내용 알 수 있어 이해가 잘 되고, 더 많은 지식을 쌓은 것 같아 더욱 흥미가 생겼으며 만족스러웠다.

그리고 ‘가족과 건강: 알레르기과 아토피를 극복하자’ 라는 과목에서는 의대 교수님께서 직접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내용과 예방법, 당뇨병과 비염에 관해서 수업을 해주신다. 내가 이 과목을 수강한 이유는 의학에 관해 관심이 많으며, 현재 가족 대부분 만성비염을 앓고 있기에 이 강의를 통해 증상과 예방법을 숙지하여 제대로 예방하고 싶어 수강하게 되었다.

이 강좌는 꼭 학생이 아니더라도 일반인이 들어도 쉽고 재미있는 내용이라 모두에게 추천해주고 싶다. 강의는 대부분 20분 내외의 동영상 강의이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고 오히려 강의 내용은 길지 않아 강의 필요한 부분만 요약하여 수업해주시는데 훨씬 보기 쉽고 배우기 좋았다.

과목마다 다르지만, 요약정리가 있는 과목은 좀 더 기억하기 쉽고 한 번 더 확인 할 수 있는 절차가 되어 필기하기도 좋았다. 각 주차 마지막엔 퀴즈가 있는데, 강의 내용을 배우면서 놓쳤거나 어려웠던 부분을 퀴즈를 통해 수업 내용을 보충해주고 복습 효과 역할을 해주어 훨씬 효율적이며 특히, 퀴즈를 맞혔을 때 희열감이 있어 더 재밌게 풀고 퀴즈나 시험에 응했다.

나의 학습 노하우는 강의마다 다른데 계산을 하거나 과학 분야 강의는 웬만하면 수필로 정리를 하고 이러한 온라인 강의나 인문·사회 같은 경우에는 강의를 우선 다 들은 뒤 자막을 따로 설정하여 한글파일로 타이핑을 쳐서 한 번 더 정리한다. 여기서 포인트는 타이핑으로 정리할 때 강의 내용을 완벽하게 다 정리한다기보다는 좀 더 보충하고 싶거나 어려워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 번 더 듣고 공부하고 타이핑을 친다. 그렇게 하면 2차로 공부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훨씬 기억에 남는다.

앞으로의 향후 계획은 이번에 이수한 강좌들과 현재 수강하는 강좌들을 통해 전공자는 아니지만 여러 기초 지식도 쌓았고 일상생활에 도움도 받고, 스텔라도 받는 정말 유익하고 좋은 경험을 얻었기에, 계속해서 본교와 타학교 K-MOOC 강의를 수강할 것이며, 다음에는 이번에 이수했던 과목들의 심화 과정 위주와 의료/의약 분야나 본교 강좌뿐만 아니라 타학교·타기관의 많은 여러 분야의 강좌들을 많이 수강하고 싶다.

아직 많은 학생이 K-MOOC 강의를 잘 모르는데, 많이 참여해서 전공 이외에도 여러 분야의 과목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DCU K-MOOC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

발행일 2021년 1월

발행처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학습지원팀
경북 경산시 하양읍 하양로 13-13 본관(A1) 306호
TEL. (053) 850-3373
<http://ctl.cu.ac.kr>

인쇄 대건인쇄출판사
TEL. (053) 252-6737 FAX. (053) 252-5832